

산불 예방 · 대응 강화 나서

남원시, 최경식 시장 주재 전 부서장 · 읍면동장 긴급회의… “초동 진화체계 구축”

지리산을 보유하고 있는 남원시가 지난 22일에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심각’ 발령에 따라 최경식 시장 주재로,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전 부서장 및 읍면동장 긴급회의를 지난 23일 개최하고 초동 대처를 위한 방안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최 시장은 산불예방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지휘했으며, 특히 최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시례를 언급하면서 남원에서도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시장은 전 부서장 및 읍면동장들에게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시했다.

특히 주택 인근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즉각 주민들을 대피시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지시했으며, 읍면동장은 긴급 이통장협의회를 실시하여 소각행위 금지 및 단속, 산불취약지역 점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피해주민을 위한 긴급 구호물자 지원, 사후관리 강화 대책을 강구도록 지시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난 22일 남원시 향교동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현장을 직접 찾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사진=남원시청 제공)

최 시장은 지난 22일 남원시 향교동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진화 직원 및 산불전문 예방진 화대원들에게 빠른 산불 진화를 치하하며 안전한 진화 활동을 당부하기도 했으며, 남원시는 앞으로도 산불 예방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며, 산불 예방을 위해 각 부서와 읍면동은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영농폐기물, 논밭두렁 소각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하고, “산불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재난”이라며 건조한 봄철 산불 예방 및 주민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역 KTX 정차 논리 집중 개발 의견 교류

임실군, 전북연구원과 정책간담회… 옥정호 관광자원 개발 · 저지중 도입 육성 방안도

임실군이 임실역 KTX 정차 등 주요 핵심 현안에 대해 전북연구원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군은 지난 21일 심 민 군수와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 주요 현안 사업의 방향성과 논리를 집중 개발하는 데 의견을 교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심크랭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북연구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의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집중 논의된 안건은 △옥정호 관광자원 개발 △농생명산업지구 연계 저지중 도입 ·육성 △임실역 KTX 정차 및 임실역 이전 △임원관대 글로벌 대학 지역상생사업 연계 과제 발굴 등이다.

특히,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이루고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임실역 KTX 정차 및 임실역 이전 사업의 논리개발과 △농생명산업지구 연계 저지중 도입 ·육성 방안에 대해 전북연구원의 정책 동향, 대응계획 제시 등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임실역 KTX 정차 현안은 전라선 철도의 경우 임실만 KTX가 정차하지 않아, 임실을 찾는 방문객 교통 불편 해소와 생활 인구 확대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지난 21일 심 민 군수와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군-전북연구원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특히 임실N치즈축제와 옥정호 출렁다리 개통, 세계명견테마랜드조성 등에 따른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위해 방문객들의 편의성 제고와 35차단과 6차안악, 국립임실호국원, 전북119안전체합관 등을 찾는 방문객들의 교통편의 차원에서 임실역 KTX 정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군은 현재 옥정호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관광개발에 힘 쏟고 있으며, 지난 2024년 옥정호 일원에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에 선정되어 약 5km의 케이블카, 곡선형 질라인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엔터츠·낙농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선정에 따라 고단백 ·고지방 원유를 생산하는 저지중 젖소의 도입 및 육성 기반 조성 등을 통하여 기존 홀스타인유 임실

치즈 산업의 고급화를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안 해결 및 국비 확보를 위한 논리 보완 등 특화 발전 전략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남호 연구원장은 “임실군은 옥정호, 치즈산업, 오수설화와 같이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 큰 발전 잠재력이 있다”며 “임실군이 천만관광시대를 열어가는데 전북연구원은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전북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천만관광 명품도시 임실군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전북연구원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흥영 기자

‘봄 기운 가득한 순창으로 오세요’

제22회 옥천골 벚꽃축제

27~30일 순창읍 경천로

순창군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제22회 옥천골 벚꽃축제’를 순창읍 경천로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순창군이 주최하고 옥천골벚꽃축제제전위원회가 주관하며,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축제인 만큼 올해도 더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개회식과 불꽃놀이는 28일 저녁 7시 40분부터 진행되며, 축하공연으로 그 분위기를 한껏 돋울 예정이다.

아울러,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는 환상적인 경관을 연출하며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특히 선호하는 맨손장어잡기 체험과 함께 활력 넘치는 난타페스티벌, 순창 특산품 마켓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돼 있다.

특히 올해는 유튜브 공연을 통해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저녁 7시부터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군민노



래지랑 결승전이 펼쳐진 후 오후 9시 폐회식으로 축제의 막을 내린다.

나현주 옥천골벚꽃축제제전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면서 “아름다운 벚꽃 터널 아래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벚꽃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순창에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면서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들로 준비된 이번 축제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초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벚꽃 만개 시기에 맞춰 열리는 이번 축제는 입장료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황의욱 순창아너스클럽 회장과 김병수 호남고교 대표가 3년 연속으로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각각 기탁했다.

‘순창을 향한 변함없는 애정’

황의욱 · 김병수 고향사랑기부금 3년 연속 기탁

순창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황의욱 순창아너스클럽 회장과 김병수 호남고교 대표가 3년 연속으로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각각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황의욱 회장은 순창군 동계면 출신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2023년부터 매년 500만 원을 꾸준히 기부해 오며 변함없는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2023년 9월 창립된 순창군 고역기부자 모임 ‘순창아너스클럽’의 초

대 회장을 맡아 단순한 기부를 넘어 도농교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병수 대표 역시 동계면 출신이며, 모집 대상은 신규 혹은 연장

속 500만 원을 기탁했다. 특히 이번 기탁은 김 대표가 재전동계면향우회장 임기를 마무리하고 차기 회장에게 이임하는 자리인 ‘2025년 재전동계면향우회 정기총회 및 신년 인사회’에서 이뤄져 더욱 뜻깊은 기부로 평가받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농기센터, 춘향제 ‘원푸드존’ 마련

지역 특화 품목 홍보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하는 제96회 춘향제에서 농특산물 축제인 ‘원푸드존’을 마련해 남원 원푸드와 지역 특화 품목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원푸드존은 백향과 가공상품 판매장과 개발 시제품 시식 행사, 백향과 요리 쿠킹클래스, 전시 및 게임 체험, 포토존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 활용 가공시제품 상품과 사업을 통해 개발된 백향과맛 애플사이다비니거, 백향과소스 닭가슴살, 백향과 샌드위치, 백향과맛 샌드위치 등 다양한 가공시제품도 새롭게 선보인다.

또한 매일 시간별로 운영되는 백향과 쿠킹클래스와 남원 백향과를 형상화한 ‘백향’이 캐릭터 상품 전시 및



포토부스, ‘백향OO(백향OO)’ 게임 체험, 각종 이벤트를 진행해 이전까지의 행사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미식 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한편, 남원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푸드 육성’ 사업은 남원만의 차별화된 미식 관광의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해 1차 생산 재배 농가부터 2차, 3차 산업으로의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노후 경유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남원시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으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총 880대(6등급 경유차 450대, 4등급 경유차 400대, 건설기계 30대)로, 시는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도로용 3중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에 따라 총증량 3.5톤 미만 차량은 5등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까지이고, 소상품인고 저소득층에게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하여 상한액 내에서 지원하며, 저감장치 미개설 및 장착불가차량(6등급에 해당)은 최대 100만원 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총증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7,800만원 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남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정상운행이 관정된 차량이다.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인터넷 접수 및 환경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추진

임실군이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전북자치도에서만 운영하는 마을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025년 1월 기준 만 18세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예정자)를 채용하고, 2년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모집을 통해 관내 마을기업 9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모집 대상은 신규 혹은 연장 지원 희망 마을기업이다. 최소 매출 2,000만원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관내 신규 이상의 마을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재무제표, 지역 활성화 기여도, 연간 가동률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해, 임실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에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임실=전흥영 기자

임실군, 찾아가는

학교구강보건사업 운영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새 학기를 맞아 오는 27일 청송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지역 내 14개 초등학교를 순회하는 ‘찾아가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운영한다.

의료원 구강전문인력(공중보건 의, 치과위생사)이 연 2회 학교를 방문해 구강 교육 및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을 제공하고, 학교 담당자가 주 1회 불소용액양치를 실시해 학령기 구강건강관리의 기초를 마련한다. 또한 칫솔치약케트를 제공해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의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양치질 습관 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임실=전흥영 기자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남원시, 외국인지원센터 본격 운영

남원시는 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통합을 위한 다양한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지원센터’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1,267명으로, 이는 남원시 전체인구(75,329명)의 약 2%에 해당하며, 주로 근로자, 이주여성, 유학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근로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남원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원활하게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내 외국인 주민(근로자, 이주여성,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생활 정보 안내 및 상담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회통합 활동(한국문화 체험, 나들이 등)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상담 전담 직원이 상

주해 한국 생활에서의 불편사항 및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이 진행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돕기 위해 수준별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며, 한국 문화 체험 기회가 적은 외국인 주민들에게는 지역 문화 체험 및 나들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한편 여성가족과 김미옥 과장은 “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남원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